


자주 자조 정신을 제고하여 목장경영 개선을 통한 원가절감, 기술혁신에 의한 생산성향상, 종축개량을 통한 고능력우 확보, 전업화 규모의 적정사육두수 유지 등 낙농경영 합리화를 꾀하며 자구책 마련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우리 스스로 강해지도록 하자.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낙농산업의 뿌리를 내렸던 지난날의 용기와 경험으로 회원 서로를 위해 끌어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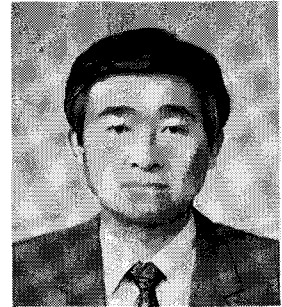
고 밀어주며 합심 단결해 나간다면 아무리 개방의 파도가 높고 거세다 하더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낙농가들이 보여준 저력을 바탕으로 도약의 의지를 새롭게 하여 낙농산업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하자.

감사합니다.



## 모든 낙농육우인은 협회를 중심으로 뭉쳐야



조 홍 원

분회이사, 서울우유협동조합이사

1994년 12월 국회는 WTO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2월 1일 우리는 대학로에서 사상 최대의 농민궐기대회를 갖고 UR제협상과 후속조치 요구를 만천하에 알리고 끊임없는 대정부 건의를 통해서 우리 농민의 의사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우리에게 허탈한 배신감만 안겨 주었을 뿐이다.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일본이 종량제 등을 이용하여 치밀하고도 철저하게 농민보호에 최선을 다한 것을 보면 우리는 종량제라는 개념조차도 몰라 협상과정에서 문제제기조차 못했다고 하니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인가.

하기야 국제 협상력이라는 것이 그나라의 사회발전 정도나 민도, 국력과 비례한다고 볼 때 우리나라가 농업부분에서 세계에서 가장 불리한 UR협상을 한 나라로 꼽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이제 농촌은 별 수 없이 벼랑끝에 몰려 서 있다. 이제 유일한 한기닥 희망은 농어촌구조조정자금 42조원과 농특세 10년간 15조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시행착오없이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 낙후된 우리농촌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재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자금이지만 우리나라 재정형편으로는 막대한 자금이므로 한푼이라도 헛되히 쓰여져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자금들이 되도록 낙농분야에도 집중투자되고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 낙농육우협회가 올바른 정책건의와 낙농가 지도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우리가 일본과 같은 협상결과를 기대한 것 자체가 "연목구어"의 어리석음 인지 모른다.

이제 농촌은 별 수 없이 벼랑끝에 몰려 서 있다.

지난 여름 사상초유의 극심한 가뭄과 더위로 황폐해질대로 황폐해진 농심은 농촌이 회생할 수 있는 후속조처없이 강행해 버린 WTO 비준안 통과로 하루빨리 탈농을 해야만 살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만연되어 있다.

지난 연말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했던 낙농진흥법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으며 협동조합을 통한 농촌재건에 부푼기대로 농수축협의 통합과 업종조합 및 지역조합의 활성화를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중앙회의 비대화를 촉진하는 기형적인 형태로 축협법이 개정되었다.

할말이 없는 세상이다.

이제 유일한 한가닥 희망은 농어촌구조조정자금 42조원과 농특세 10년간 15조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시행착오없이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

낙후된 우리농촌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재원으로서는 턱없이 부족한 자금이지만 우리나라 재정형편으로는 막대한 자금이므로 한푼이라도 헛되히 쓰여져서

는 안될 것이다.

이런 자금들이 되도록 낙농분야에도 집중투자되고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야말로 낙농분야의 전국농민단체인 낙농육우협회가 올바른 정책건의와 낙농가 지도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되돌아보면 협회는 많은 낙농가의 무관심과 재정적 어려움속에서도 즐기치게 대정부정책건의와 지도홍보사업으로 나름대로의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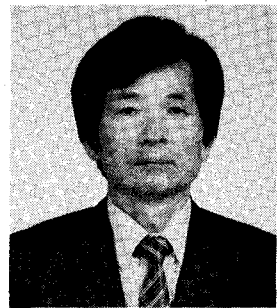
이제는 전국의 모든 낙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으로 단합된 큰힘을 이루어내어 쓰러져가는 한국 낙농을 다시금 굳건한 기반위에 설 수 있도록 협회를 중심으로 뭉쳐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인이 지난 3년간 협회 임원의 한사람으로 너무나 한 일 없이 지낸것이 새삼 부끄러워진다.

내년 2월 실시될 임원개선과 회장단 선출에서 눈바로 뜨고 사심없고 유능한 우리의 지도자를 선출하여 한국낙농육우산업의 발전과 협회 활성화에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도지회 설립으로 명실상부한 전국 소사육농민의 위상강화



정 세 훈  
본회이사, 전북도지회장

협회 이사직을 완료하는 시점에서 착잡한 심정만 남는다. 가장 급박하게 농축산업의 주변여건과 상황이 변화하는 시기에 중책을 맡아 소임을 다하겠노라

고 나름대로 노력하였지만 남는건 역시 아쉬움이다. 제대로 우리 낙농육우인의 요구에 충실하였는지, 당초의 목표와 계획에 일치되도록 활동하였는지 반성을